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능력을 모든 교회들에게 주사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 3절



KAPC 제43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

총회장 양수철 목사, 부총회장 조문휘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제43회 총회가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힐튼호텔 LAX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에 양수철 목사(가주노회/에버그린선교교회)가, 부총회장에 조문휘 목사(뉴욕동노회/온누리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총회장 양수철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45년 동안 '성실하게 살자' 라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노회, 그리고 개혁장로회신학교 이사로 재직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며 "이제 총회를 성실하게 섬겼다"고 인정받는 것 한 가지가 남았다. 총회 산하 모든 총대들과 지교회에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인사했다.

#### KAPC 제43회 정기총회

이번 총회에는 한국의 주요 장로교단 총회장들이 친선사절단으로 참가해 교단의 위상을 드러냈다.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무엇이 보이느냐'(막 8:22-26)라는 제목으로 총대 세미나에서 강의했으며, 22일 새벽기도회에는 안태준 목사(대신 총회장)가 '다윗의 마음'(대상 21:18-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저녁에 열린 세계선교회(WMS) 주관 선교의 밤에는 홍동필 목사(합신 총회장)가 '목회자의 결단'(시 57: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수 목사(개혁 총회장)가 '나는 어떤 일꾼인가'(딤후 4:10-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저녁기도회는 김성복 목사(고신 총회장)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히 12:14)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김재열 목사(총회장) 사회로 21일 오후 7시에 시작된 개회 예배는 최동진 목사(남가주)가 기도했으며, 이영진 목사(중부)의 성경봉독과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양수철 목사(부총회장)가 이번 총회의 주제인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시 106: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권혁천 목사(서기)가 광고했으며 강기봉 목사(뉴욕 서기)가 축도했다.

소노로스 중장단 특송후 영민 목사(증경총회장) 집례로 시작된 성찬예식은 기도 김석진 목사(수도), 성경봉독 정준성 목사(뉴동), 설교 영민 목사, 분별과 분산, 축도 김영수 목사(브라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무처리는 회원호명, 개회선언, 환영사 김요섭 목사(총회준비위원장), 절차보고, 고시부 보고, 임원선거 공천부, 신구임원교체, 회장 분배 에버그린선교교회, 취임인사 신민 총회장, 광고 출석위원 지명, 공천부 보고, 상비부 조직보고, 회록채택의 순서로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 “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미 언론, 최근 앨라배마 주 낙태금지법 시행 배경과 전망 예측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견해가 보수 진영 우위로 급속회하고 있다.

얼마 전 태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면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앨라배마 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15일 주지사의 서명한 동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는 10년형을,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는 최대 99년형을 살게 된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위험한 경우'다.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

도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급 법원이 이 법안의 효력을 막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까지 법안을 끌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관 진용을 고려했을 때,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CNN, 뉴욕타임스 그리고 포브스를 포함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25대6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25명 모두 남성 의원이었다.

앨라배마 주지사 캐이 아이비는 "앨라배마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해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동 법안은 임신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낙태법에 대해 다음의 장애물이 남아 있다.



1. 법은 11월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앨라배마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동 법률을 집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1월이다. 앨라배

마 낙태방지법 시행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은 법적 문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법률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8,15 해방전한인선교사 손상용 목사



7면 본사방문 김대호 목사



14면 인터뷰 양수철 목사



16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프로그램)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	---	--------------------------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료 리스팅 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

발행인 칼럼

너를 보니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얼마 전 교단총회가 LA에서 있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는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이다. 교단의 신임 총회장 목사님이 폐회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단결혼주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몰랐다. 그리고 궁금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가셨다. "그 짧은 주례사는 김구 선생님의 주례사였습니다." 침이 꼴깍. 더 궁금해진 것이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그것이 주례사의 전부였다. 총회장님은 그 주례사처럼 가장 짧은 폐회설교를 하시겠다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다"라는 짧은 말씀으로 시작 겸, 본론 겸, 마무리하셨다. 짧은 주례사, 짧은 설교에 큰 임팩트(impact)가 있음을 여실히 느낀 가운데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구절이 있었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마 그날 결혼하는 남자청년의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의 지인이었으리라. "너를 보니 -----이 생각난다."

나를 볼 때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자랑고비"가 생각난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이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자랑 들음이 생각난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고 한 때 거울보고 나 혼자 생각했던 것뿐이다. 오래 전 한국에 "나는 가수다"라는 음악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들은 모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자들인데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등수를 매기어 다음에 계속 참여 또는 탈락을 시키는 재미있고도 잔인한(?) 프로그램이었다. 그 첫 회엔가 김건모라는 당대의 최고가수가 탈락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나는 가수다" "나는 교사다" "나는 요리사다" "나는 목사다" 내가 누구라고 외치기 전에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아봐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보니 지난 삶에서 나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 자아가 왜곡되어 있으면 누가 나를 정당하게 보겠는가. 열등한 또는 교만한 거짓 자아를 품고 사는 이에게 밝고 높은 평가를 줄자는 없으리라. 내가 남의 마음에 들기 전에 내가 나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한다. 내가 싫어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거짓 자아를 철저히 깨야 한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다. 그의 다른 책 내용이 그렇듯이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책의 제목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군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곧 들릴 날 나의 외식과 가식이 잠시 통하였다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이런 신의 성품을 품고 있을 때 "너를 보니 너의 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겠노라"는 말을 부끄럼 없이 들을 수 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 짧은 주례사가 그 당시 그 청년에게만 필요하였겠는가. 수십 년 전의 그 짧은 주례사가 오늘까지 긴 여운을 남긴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인종차별주의!

WP, 지구촌 백인극단주의 부추기는 '아이덴티타리언' 운동 배경과 소개 및 비판

요즘 유럽에서는 단순한 카테일파티 초대와 극우파 모의의 시작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오스트리아 언론은 마틴 셀너와 브렌트 테런트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다고 보도했다. 셀너는 반듯한 이미지의 "오스트리아 아이덴티타리언 운동(Austrian Identitarian Movement)"의 리더이고, 테런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에서 총기난사를 벌인 인물이다. 테런트는 셀너의 단체에 기부금을 냈고, 이후 이들은 이에

일을 주고받았다. 셀너는 테런트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고 비엔나에서 만나 맥주를 마시자고 청했다. 테런트가 실제로 비엔나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호텔을 예약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는 오피니언 난을 통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우단체들의 또 다른 인종 차별주의 운동을 비판한다 (How Europe's 'Identitarians' are mainstreaming racism).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셀너는 현재 유럽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바로 "극우 중개인"의 부상이다. 과거의 네오나치와 달리, 이른바 "아이덴티타리언(Identitarian)"들은 군화를 신고 머리를 민 채 어두운 거리를 배회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련된 웹사이트와 프로 수준의 영상물을 자랑하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정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이는 대신, 난민들이 무대에 올린 연극을 방해하는 등의 "해프닝"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자신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다만 자신의



2016년 독일에서 젊은 아이덴티타리언 백인들이 주도한 반 이민, 재민 시위 장면

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류 정치인들도 이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표인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로부터 "유럽을 방어"해야 한다든지, "재이민(거친 말로 하자면 "인종청소"가 된다)"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언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영국 전략대화연구소 소속으로 이 주제의 보고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제이콥 데이비스는 "백인 대량 학살"에 대한 공포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새로이 형성된 국제적 극우연합에 이민 위기와 지하드 테러 위협이라는 현재의 정치 상황은 이들에게 완벽한 배경을 선사한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하나의 주제 아래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거대한 대체"와 같은 음모론은 이민의 영향력과 이슬람교-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과 같은 전통적인 대화

"극우 중개인" 부상...세련된 웹사이트, 프로급 영상물, 정식조직 운영 도덕적, 정치적, 디지털적 문제...이 현상에 대한 결론 아직 내지 못해

문화를 지키고 싶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테런트와 같은 극단주의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정계 주류가 된 오스트리아의 자유당과 어울린다. 그러면서 인종주의적, 음모론적 사상을 인터넷의 주변부에서 주류 정치로서서서 밀어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스트리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들은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한다. 영어로 찍은 한 영상(미국의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서 셀너는 자신을 "애국자"로 칭하며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자랑하고 "언론의 자유"와 "문화

부흥리는 자신이 아이덴티타리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의 배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근 공개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언론 장악 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소송에서는 패하고 말았다.

관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이덴티타리언들의 사상은 자유당의 공식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슈트라헤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대한 대체 (Great Replacement)"라는 표현은 유럽 백인을 무슬림으로 대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락을 일컫는 말로, 아이덴티타리언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다. "침

아이덴티타리언들의 언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전략대화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가 온라인에서 "거대한 대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를 추적했더니, 트위터에서만 150만 여 건이 발견됐다. "재이민"이라는 용어 역시 아이덴티타리언과 독일대안당(AfD)과의 만남이 이뤄진 후 독일 내에서 빠르게

대량 "재이민", 나아가 살인의 정당화로 끌고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화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 "거대한 대체"와 같은 아이디어의 부상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즉각적이고 과격할 해결책을 요하는 위급한 존재론적 위기라는 인상을 준다.

(7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Master Degree Programs, Doctoral Degree Programs.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

(1면에서 계속)

총회장은 부총회장 양수철 목사(가주노회, 에버그린 선교교회)가 공천됐으며, 부총회장에는 조문휘 목사(뉴욕동노회, 온누리교회)가 공천됐다. 그러나 이날 공천돼 부회록서기로 결정된 하경남(브라질노회)은 총회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전대구 목사(아시아노회)로 변경됐다.

다음은 제43회 KAPC 총회 임원명단이다.

△총회장: 양수철(가주노회/에버그린선교회) △부총회장: 조문휘(뉴욕동노회/온누리장교회) △서기: 한일철(동남부노회/그린스보로한인장교회) △부서기: 김미성(서북미노회/한마음장교회) △회록서기: 김관중(남가주노회/새

창교회) △부회록서기: 전대구(아시아노회/제자교회) △회계: 김원도 장로(뉴욕노회/퀸즈장교회) △부회계: 김영석 장로(북가주노회/상향중앙장교회).

22일 저녁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에서 세계선교회(WMS 이사장 조문휘 목사) 주관으로 열린 선교의 밤은 이사장 조문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선교회 이사), 찬양 대흥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흥동필 목사(합신 총회장), 파송선교사 소개 우경철 목사(선교회 서기), 서약안수공포, 파송식 총회장과 선교회 회장, 파송기도 총회장, 권면 채기수 선교사(네팔), 봉헌기도 정관호 목사(선교회 부서기), 특강 박광석 목사(모르타니아 선교사), 운영이사 소개 및

경과보고와 광고 권혁천 목사(선교회 총무), 축도 이용길 목사(전 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도균(뉴욕동, 니카라과, 뉴욕성실장교회) △박광석(뉴욕동, 모르타니아, WMS) △이재석(중남미, 볼리비아, 새희망교회) △황정석(중남미, 에파도르, 나눔교회) 등 4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다.

또 23일 오전에는 김은일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교)이 총대 세미나를, 임선정 박사(사우스배일러 한의대학교)가 사모세미나를 인도했으며, 윤승준 '선교사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스마트 목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편 회무처리 시간 회원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발생해 첫날회무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가미노회 소속이었던 임건택 목사의 서북미노회원 자격여부를 놓고 노회변경시 필요 요건인 이명증서 발급여부 문제로 양 노회 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으며, 임 목사의 회원자격 여부는 긴급 구성된 증경총회장단에서 결정기로 하고 둘째날 저녁 회무시간에 회의로 받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목사고시는 박석영 전대사(남가주) 등 12명이 합격했다.

KAPC는 31개 노회에 517개 교회, 512명 담임목사, 157명 부목사, 35명 원로 및 공로목사, 183명 선교사와 기관전도 목사, 26명 군목, 231명 무임목사, 582명 장로, 37,170명 세례교인, 6,038명 유아세례가 소속되었다.

(박준호 기자)



### 시론

## 자기 정체성과 내적 가치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학교를 보내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그리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구중학교로 유학을 간 그해, 중학교 1학년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큰 실망하실 거 같아 성적표의 68등이라는 숫자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은 뜻밖의 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1등을 축하한다고 시골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연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죄책감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인터넷에서 파운 글).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시골 가난한 집에서 농사짓고 돼지를 기르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자식은 아버지의 기대와 믿음만큼 성장한다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요, 종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일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6:11) 라고 불리우며 사는 그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야기 하나 합니다.

어느 강사가 강의 도중 지갑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모두 손을 듭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 100불을 주머니에 꼭 쥐고 구기더니 다시 말합니다. "여기 구겨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모두 손을 듭니다. 강사가 구겨진 100불을 바닥에 던집니다. 100불짜리 지폐는 구겨지고 뽀얗게 먼지까지 묻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합니다. "구겨지고 버려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모두 손을 듭니다. 그걸 본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100불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바닥에 던져 버렸는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불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는 존재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구겨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가치는 전과 다름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이 100불의 지폐처럼 인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평가 절하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열등감에, 대인 기피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졌고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100불엔 100불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이 문제들로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적 가치'는 나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불리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주십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다 쓰고 알려지지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종살이를 하다가 문득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 염치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집 나간 작은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언덕에 올라 기다리던 아버지! 저 멀리서 누더기를 입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는 달려갑니다.

(4면으로 계속)

### "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1면에서 계속)

특히, 미국시민자유연맹(US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이미 해당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앨라배마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했다. 두 집단 모두 연방 지방 법원에 예비 금지명령 또는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한 경력이 있으며, 연방 지방 판사들도 법적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반대 법의 발효를 종종 차단한 사례가 있다.

2. 결국 해당 법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앨라배마의 프로라이프 연합 대표이며 이 법의 초안을 도운 에릭 존스턴(Eric Johnston)은 실제로 앨라배마 법은 1973년 미국에서 2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대법원에서 도전하도록 특별히 고안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로 선택하면 종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앨라배마 주의 인권운동연합(US Civil Rights Union) 대표인 랜달 마셜(Randal Marshall)은 앨라배마 법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이미 14건의 사례가 여전히 절차 중에 있고, 이중 2건은 현재 대법원에 있지만, 어떻게든 이것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재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3. 2020년 선거 이후

고등법원이 앨라배마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는 2014년 낙태 제공자가 30마일 이내 병원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으나, 이 사건은 법통과 이후 6년이 경과된 2020년 대법원에 의해 제기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대법원에서의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4. 미국 전역의 낙태금지법 관련 동향

지난 4월 인디애나 주에서 임신 15-28주 기간(second-trimester)의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며칠 후, 오하이오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

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주 또한 낙태금지법에서 서명을 했으며, 수요일, 앨라배마 주 케이 주지사는 이 절차를 사실상 전면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루이지애나 주와 미주리 주 2개 주 의원도 오하이오 주법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 최소 10년부터 99년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이 치명적인 상태만을 예외로 놓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가장 엄격하고도 강력한 낙태법이다. 이로써 미국 전역의 주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안을 통과시켜 자유주의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미국에서의 낙태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법적 투쟁이 시작됐다.

낙태반대단체(Americans United for Life)의 스티븐 아덴 변호사는 "올해는 최근 기억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보수적인 주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 앤서니 M. 케네디 후임으로 브렛 M. 카바노를 선택한 지난 가을부터 시작됐고 보수와 주(일명 레드 주)들은 더 많은 규제를 통과했고, 진보와 주(일명 블루 주)들은 보호책을 통과시켰다. 현재 많은 곳에서 주 입법 회의가 끝나면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통과된 낙태법이 약 3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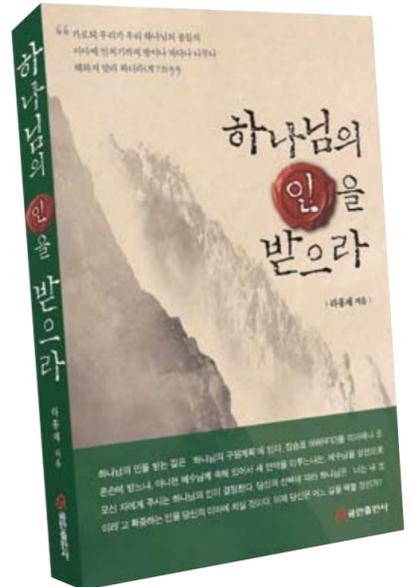
낙태권을 지지하는 구트마허 연구소의 법률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내시는 "이러한 법률적 활동이 반드시 과거보다 많은 것은 아니며, 어느 때보다 1973년 연방 낙태보호법을 제정했던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어느 때와 큰 차이점으로 꼽는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요일, 배턴 루이지애나 하우스 위원회는 낙태 권리 운동가들이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태아 심장박동 법안을 제출했으며, 목요일 아침, 미주리 상원은 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제외하는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었다.

(4면으로 계속)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잃어버린 보석

결혼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어느 날, 결혼반지의 중앙에 박혀있던 반짝이는 보석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요즘 귀한 보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보석!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A. W. 토저가 예배를 상실

한 현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예배’라는 보석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까?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적 의미는 “00에게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린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의 그리고 영광을 표현하며 엎드려 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매일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와 매 주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모여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 예수 님

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갑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삼위일체 공동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장차 하나님나라에서 온 민족과 방언이 드릴 찬상 예배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예배, 삶의 예배와 공동체적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두 예배 모두 교회와 성도의 면류관에 박힌 반짝이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체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커피마시며, TV 시청하듯이 맘에 드는 설교를 듣고 바꾸어 가면서 인터넷 예배를 ‘뵙’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

느라고 피곤한데 좀 덜 바쁠 때, 혹은 부활절이나 성탄 같은 특별한 시즌에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를 일주일의 한번, 반드시 해야 하는 종교행위로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사고라도 날까봐 게름치해서, 하나님께서 벌주실까 두려워서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실종입니다.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점점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자로 부름 받은 우리에게 예배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야경도 지구상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공동체적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을 깨닫고 공동체적인 예배인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개인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히 10:25).

# 푸/른/초/장

박태규 목사  
(뉴욕새힘장로교회)



믿음이란? 어떤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 주변이나 우리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느낌이 어떻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하라고 한 신 말씀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믿을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히 11:6)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선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드러나는 특성들이며 세상의 다른 모든 믿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11:4)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는 말씀은 그 예물에 담긴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물이 그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헌금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행위를 ‘생명을 바꾸는 사

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11:4)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는 말씀은 그 예물에 담긴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물이 그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헌금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행위를 ‘생명을 바꾸는 사

였는가? 2.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4). 여기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3)는 것과 비교가 되는 표현입니다.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여러 양 중에서 단순히 한 마리가 아니라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이는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차이. 나아가서 믿음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것’은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게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제물을 통해 드러난 아벨의 믿음이고, 아벨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열납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3. 내 삶에서 주님이 일등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항상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계시는 때의 일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수로보니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자존심이 충분히 상할 수도 있었지만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들로 들림 받았습니다. 예녹의 365년 동행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기존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말씀만 의지하여 모험을 감행했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해 나갑니다.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시험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낱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잔혹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보다 더 잔혹한 것은 그 뜻을 받아 들여야 하는 이삭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후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거나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복합니다. 일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의 믿음이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아 산은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 터가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곳이 제단이었으니 성전입니다. 날마다 예배 드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날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자신을 바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요, 순종은 나의 전부를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부냐 전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히브리서 11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엡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이와 같은 예배자의 자세, 신앙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믿음의 열조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가 비록 허무하게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새 말을 한다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갖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건(exchanging life)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제물은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믿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의 믿음을 증거하였으나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의 믿음을 증거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드렸던 예배 생활의 방법은 태도에서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실과 형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열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더 잘 드리려는 자세, 태도가 그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나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증거 하는 그의 믿음 어떤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인 것을 고백한 것이다. 가인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마음이다. 이것이 후일에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3:9)는 명령으로 기록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곧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항상 일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실 수가 있고, 모든 일에

여인에게 “믿음이 큰 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큰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22절에 보면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예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요, 나 자신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모실 수가 있고, 모든 일에

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꺼안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치료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의 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자기 정체성과 내적 가치”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그 자리’를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5-39).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pastor.eun@gmail.com

# "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3면에서 계속) 그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는 정말로 법원이 낙태 권리에 대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주 입법부들은 종종 법원에서 실패한 사안을 법을 통한 해결

하려는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은 점점 더 반 낙태결의에 동정을 표하게 됐고, 현재 중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은 낙태반대 성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실제로, 캔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는 낙태 클리닉이 하나씩만 남아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판사 변경으로 인해 낙태반대 운동가들은 40년간 지속돼오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노력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 시론

(3면에서 계속) 아무리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갖고 떠나 탕진하고, 거지가 될 정도로 인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아버지에게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내적 가치를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꺼안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치료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의 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자기 정체성과 내적 가치"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그 자리'를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5-39).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pastor.eun@gmail.com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의 동부 브힐(EASTERN BHIL)



브힐(Bhil)은 2개 지역으로 분리한다. 중부 또는 "순" 브힐(Pure-Bhil)과 동부 또는 라주푸르 브힐(part-Rajput Bhil)이다. 동부 브힐 족들은 인도의 중서부 산맥에서 살고 있다. 특히 북부 구자라트(Gujarat), 남부 라자스탄(Rajasthan), 그리고 북부 마

하라스트라(Maharashtra)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구자라티(Gujarati) 족과 라자스타니(Rajasthani) 족 사이를 연결하는 인도의 부족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인도 아리안(Indo-Aryan) 어의 하나인 데왈리 빌리(Dehwali Bhili) 언어로 말한다.

초기에 브힐 왕(rajasthani)은 평원지대에서 구릉지대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그들의 독립과 통치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브힐족은 모갈스(Moghals)족들이나 마라타(Marathat)족, 그리고 영국인들과 대적해 전투를 벌였다. 1947년까지 "브힐족의 살

해"(the Bhil kill)로 유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브힐 족은 사르다 사라보 댐 공사계획(Sardar Saravor Dam Project)으로 인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 댐이 완성되면 브힐 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몰된다. 새로운 정착 계획이 논의되곤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 삶의 모습

오늘날 브힐 족은 주로 소작농업, 막노동, 촌락의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 농지가 점점 적어지고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지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다루는데 선수들이다. 사실 브힐이란 말은 빌리(Billee, 활)란 단어에서 유래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은 부족의 독특한 무기였다. 보통 남성들의 행차 때 활과 화살을 소지한다. 여성들은 진한 청색이나 검은 사리(어깨

와 허리를 감싸는 천) 안에 브라우스를 입는다. 도시의 청년들은 머리에 헝겊으로 매고 귀걸이를 달고 칼이나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힌두인들과 구별된다.

동부의 브힐 족은 보통 부끄러움을 잘 타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즐겨한다. 축제, 춤, 연극 그리고 음악은 그들의 폭넓은 문화지만 이 행사기간 중 엄청난 술이 소비된다.

브힐 족들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결혼한다. 만약 타 계층과 결혼하게 되면 하위 계층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상류층으로 전위된다. 이런 관습은 부족 내에서 엄격히 강요되고 있다.

각 촌락은 논쟁을 해결하는 우두머리가 있다. 가족들 간에 존경심이 강하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교감이 있다. 재산의 분배는 동등하게 아들들에

게 돌아간다. 브힐 촌락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가옥들은 수수, 옥수수, 밀과 보리가 자라는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와 나무 가지로 잘 엮어서 만든 잘 정돈된 집에서 살고 있다. 지붕(별집모양)은 보통 흙으로 만든 타일을 쓰고 있지만 가끔 볏짚과 나뭇잎으로 만든다.

#### 신앙

동부 브힐 족은 거의 대부분 힌두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토속종교를 믿고 있다. 쉬바(Shiva)는 대신이다. 조상숭배(죽은 조상신에게 기도) 또한 매우 대중적이다. 사만(Shamans 무당)이 만신들과 흙 우상에게 제물을 놓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이들의 이방신앙에도 불구하고 상위 카스트인 바갓(Bhagat) 힌두교부 가운데 하

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었다. 그는 죽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북서 지방에 대가뭄이 들것이라 경고했다. 그리고 북서지방에서 온 분들에게 참무원의 길을 성경에서 값없이 가르칠 선생들을 찾아야 하며, 그들은 참하나님과 동정녀에게서 난 죄없이 성육신한 자에 관한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힌두교부는 계속해서 또한 돌들과 우상을 버리고 이 죄없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뭄은 1899-1900년 그 교부가 죽은 바로 즉시 발생했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오늘날 6개 선교기관이 이 부족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2천6백여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는 인구의 0.1%뿐이다. 많은 중보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대화 들씨 살린 트럼프 "북 발사, 제재위반 아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도쿄 모토이카사카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강국으로 만들고 싶어한다"며 "그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그런 일(경제강국)은 없을 것이라는 걸 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영토는 바다와 접해 있어 부동산 사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해야 경제적 번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내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관심을 끌려고 (미사일 발사)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어 "우리(북·미)는 언젠가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미·일 양국의 대북 정책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아베 총리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며 "미·일동맹은 강고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회견에서 "최근 북한 정세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북 정책을 심층 조율해 왔다"며 "일본과 미국의 대북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감"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 차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도 진전되고 있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도 하지 않고 소소한 활동만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면담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랜 기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나 격려하고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직접 김 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

통령은 "미국은 납치 피해자 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미국인 탈레반 출소에 미국 긴장

'미국인 탈레반'으로 유명한 존 워커 린드(38)가 출소했다. 린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합류했다가 미군에게 붙잡혀 17년 동안 감옥생활을 한 인물이다. 미국 내에서는 그가 여전히 극단적 이슬람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사회가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에 가담했던 자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



린드는 23일 미국 인디애나주 테레호테 연방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2002년 탈레반 합류와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범수로 분류돼 기존 형기를 3년 남긴 이날 조기 출소했다.

린드의 조기 출소 소식은 미국 사회를 불안에 빠뜨렸다. 그는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서구권 시민들보다 15년 이상 앞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투신했던 인물이다. 린드는 불교도 어머니 아래에서 가톨릭 신자로 자랐지만 16살에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1960년대 급진적 흑인해방운동을 이끌었던 맬컴 엑스의 자서전을 보고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린드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지 1년 만에 예멘으로 건너가 탈레반과 접촉했다. 20살이었던 2001년에는 탈레반 무장조직의 일원이 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군에 맞섰다.

그는 곧 현지 반(反)탈레반 연합체 북부동맹과 교전하다가 붙잡혀 미군에 인계돼 아프간 북부 마자리샤리프 인근 수용소에 수감됐다. 여기서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진다.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마이크 스펠이 린드를 심문한 직후 수감자들의 폭동에 휘말려 살해된 것이다. 린드는 스펠을 살해하는 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스펠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7년 만에 출소한 린드가 여전히 극단주의 성향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2017년 국가 테러센터보고서를 인용해 그가 "세계적인 이슬람 극단주의단체들을 계속 옹호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자의 글을 쓰고 번역했다"고 전했다. IS와 그들이 시리아 일대에 세웠던 칼리프국(이슬람 신정일치)에도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린드는 3년간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그는 의무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극단주의 이슬람 관련 자료는 소지는 물론 열람도 하지 못한다. 온라인에서는 영어로만 활동할 수 있고, 당분간 미국을 떠나는 일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린드의 출소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유럽에서는

이미 과거 극단주의 혐의로 수감됐던 이들이 재차 테러를 벌이는 일들이 많았다. 2015년 프랑스 풍자만평 잡지사 샤흐리 에브도 테러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는 여전히 이슬람 극단주의자 108명이 수감 중이다. 린드에 대한 여론이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린드가 조기 출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린드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린드가 조기 출소한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며 "그는 여전히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제이슨 레자이안은 '린드는 법이야말로 테러리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린드가 정확한 법 절차에 따라 조기 출소했다고 지적했다. 레자이안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정의는 맹목적이었다"며 "이 쓰러진 사건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린드의 석방이 법치주의를 지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 기상청장 "5G로 기상예보 40년전 후퇴 우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신호가 인공위성 전송기상 자료에 간섭,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해양대기청(NOAA)의 입장을 놓고 정부 기관들끼리, 그리고 정부 기관과 민간통신업



계 사이에 찬반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미국이 5G 기술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 기술이 기상자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허용 수준을 놓고는 양보 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NOAA의 닐 제이컵스 청장 대행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5G의 기상자료 간섭이 예보의 정확성을 30% 정도 떨어뜨림으로써 1980년대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준이면 지난 2012년 미국 동북부 연안을 강타한 슈퍼폭풍 샌디를 수일 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잘못 예측해 재해 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기상자료 손실이 2%만 돼도 NOAA가 기상예보뿐 아니라 기후 감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운용하는 110억 달러짜리 극대도 인공위성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인 CTIA의 브래드 길렌 부회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길렌은 NOAA의 주장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 10년 전 기술"인 인공위성 탑재 마이크로파 감지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우리의 5G 주도권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위스콘신대의 대기과학자 조던 거스는 취소된 감지기 대신 그와 유사한 감지기가 NOAA의 위성 2기에 실려 운용되고 있고 다른 국제기구들도 같은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며 길

렌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거스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들 마이크로파 감지기들은 주파수 23.8GHz로 대기 내 수증기 자료를 전송하는데, 지난 3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G에 할당된 주파수가 인접한 24GHz여서 여기에 간섭받기 쉽다고 설명했다.

인접한 주파수 대역으로 인해 간섭이 일어난다면 수증기 자료의 손상돼 정확한 기상예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TIA도 이메일을 통해 신형 마이크로파 감지기는 취소된 감지기에 비해 5G 주파수에 간섭받을 여지가 훨씬 적다고 다시 반박했다.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 해군은 NOAA 편에 섰고, FCC는 이동통신업계 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의회 의원들도 공화, 민주 가리지 않고 NOAA 쪽 주장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올 가을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앞서 정부 입장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 유엔보고서 "북 주민들, 생존 위해 뇌물 바쳐야"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28일 펴낸 보고서에서 밝혔다.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는 관리들이 주민들에게서 금품을 쥐어짜 내고 있고,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주민들은 이른바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경제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주로 양강도, 함경도 등 중국과 국경을 접한 곳에 거주했던 주민들로 이 지역은 1994년 대기근 때 가장 먼저 배급이 끊겼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유엔 제재 때문에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군이 먼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의식주와 노동,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런 권리를 준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북한에 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에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명당 4명꼴인 1천 10만명은 최근 10년 동안 식량 생산량이 바닥을 치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소한도로 삭감된 배급은 더 줄었다.

보고서는 관리들이 체포와 구금, 고문 위협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당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사회 구조가 갈취와 부패, 억압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탈북 주민은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만 하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라며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다른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심지어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74. 정인과(1888-1972)

정인과는 1888년 1월 9일에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로 잠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차 1913년 7월 9일에 몽골니아 선편으로 샌프란시스코(상항)에 도착했다.

#### 삭도 교회

정인과는 그해 10월에 새크라멘토(삭도)에 안착했다. 당시 서양 교사를 초빙하여 김홍균의 집에서 매일 야학을 열었는데 정인과는 이곳에서 황사선, 김홍균, 김병규, 윤운호, 장경애, 김석은 등과 함께 공부했다.

1913년에 삭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해 가을에 한국에서 유학 온 신학생들이 삭도에 많이 이주함으로 교회가 날로 흥왕하였다. 11월에 정인과는 황사선과 함께 삭도에서 주일 예배와 삼일 예배를 인도하였다. 당시 교인으로는 위의 야학생과 삭도의 한인 학생이 있을 것이다. 삭도 한인 학생으로는 중학교 1학년 박봉렬과 소학교에 다니던 7학년 이순복, 4학년 이순형, 1학년의 이순경과 이남애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던 이태디가 있었다. 정인과는 삭도에서 행한 예배 인도는 길어야 2달가량이었지만 자비량 선교사였다.

#### 상항 한인교회



정인과

1914년 초에 정인과는 상항으로 이주했다. 그가 그해 1월 8일의 신한민보에 기고한 아래의 “새해를 환영함”에서 그의 사람됨과 조국의 자유 독립의 메시지를 듣는다.

나, 이 외로운 몸이 적적히 책상을 의지하고 은은히 앉아 왕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중에 무한한 감상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한 조각 흑운이 서산을 쫓아 일어나 홀연히 백일청천을 가리는 것 같도다. 알지 못거라 이 위인 연고인가 다만 이 날이 때의 분각이나 의 사상을 이처럼 착란케 하도다. 청컨대 분노니 오늘이 무슨 날이오. 이

상타 문전 시가에서는 수를 헤일 수 없는 황백인종이... 온 장안을 진동하여 사람에게 정신을 어지럽게 하도다.

이같이 황황적적할 즈음에 한 친구를 맞는 즉 송구영신하는 기도를 시작한다기에 의복을 엄숙히 하고 예배당을 찾아 들어간즉슨 몇 분이 돌아앉아 있는데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또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여 마치 외팔을 출가시킨 가정과 방불하더라.

이날이 때를 당하여 만국 사람을 오직 기쁨으로 신년을 맞는데 다만 우리 동포는 영신하는 외형내정이 이상하고 별 하여 능히 축란치 못하겠도다... 오직 우리 민족은... 다만 신년만 환영케 되므로 희열이 상반된 줄 아노라.

이렇듯 ... 우리의 극히 사모하고 바라는 바 조국을 참극 무도한 그물에

한 시간씩 국한문을 가르친 것이나, 그가 그해 3월 19일 자 '신한민보'에 기고한 '자유독립촉점'이나 모두 '한국'의 역사와 지리와 국어를 가르쳐서 자유 독립의 초점이 되는 소학교 정신교육을 통한 조국의 독립'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인과도 낮에는 상항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서양 사람이 운영하는 야학교에서 공부에 힘썼다.

정인과는 1914년 2월 12일에 개최한 계삭회에서 상항 한인교회의 권사가 된다.

#### 나성

1917년 6월에 정인과는 로스앤젤레스(나성)의 지금의 바이올라대학인 나성성경학원을 졸업하였다. 국민회 나성지방회가 1917년 6월 22일에 그해 졸업한 민찬호, 강영승 그리고 정

교신학교에 입학했다. 삼일운동 직후인 1919년 7월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될 때 북미지역에서는 안창호를 특파원으로 하여 정인과와 황진남을 수행원으로 파송했다. 이때 안창호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맡았고, 정인과는 황진남과 함께 미국 교민대표로 임시정부 의원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임시의정원 부의장과 외무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그는 1920년 모든 직을 사임한 뒤 도미하였다.

#### 상항 한인교회

상항으로 돌아온 그해 10월 24일 주일에 정인과는 상항 한인교회에서 전도시간을 맡아 원동 방면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였고 일반 청중들은 새 정신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11월 25일 하오 8시에 있

### 삭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2달 간 예배 인도

### 임정수립시 북미지역에서 안창호와 수행원으로 파송

벗겨 환영하며 천층 무저항에 들어 사마이 경각에 달린 조국 동종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라. 이를 하고자 하면 인물과 재정을 환영하여서 되나니 인물은 말로만 영웅이란 자를 원치 아니하며 은은히 실행하는 사람 원하며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여 모든 사람을 지휘하고자 하는 자를 원치 아니하며 복종하며 참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을 원하노라. 재정은 자기의 체면 타인의 권면 혹 청원 요구를 불피하여 내이거나 또 술 먹고 아편 먹고 잠피하고 좀 남는 것 있으면 내어 불가 하는 그런 재정은 천만 원이라도 불원시오. 오직 자기 의무로 알고 조국을 회복하고 동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여 먹고 남는 것을 바치는 그 돈은 일 푼이라도 심히 원하는 바라. 동포 동포여 어서 어서 힘쓰고 힘써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바를 환영하기를 천만번 축수하나이다.

그해 1월 19일부터 정인과는 상항 한인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매일

인교를 위하여 졸업축하회를 개최하였을 때 신학사를 받은 정인과의 답사에서 그의 수양을 듣는다.

“우리를 위하여 축하회를 여신 여러분의 후의를 감사합니다. 나는 수양에 대한 방법을 간단히 말하나 하나는 자연계요 하나는 문학기려. 위에 대한 진행은 관찰, 묵상 그리고 실행의 삼중이 있으니 예로 말하면 모세가 애굽 황궁의 영광으로 문학과 철학의 지식이 있지만 동쪽이 원수의 편책 받는 것을 관찰하는 동시에 원수를 치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흥해를 평지 같이 시내산을 평원같이 목상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감을 실행하였나니 여러분은 수양 상에 이처럼 관찰하시고 목상하시고 또 실행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임시의정원 부의장과 외무차장 정인과는 귀국하려던 걸음을 멈추고 상항 인근 산 안셀모에 있는 장로

있던 추수감사절 예배 순서에서 그는 본 교회 담임목사인 이대위 대신에 권설(설교)도 담당했다.

#### 귀국

정인과(제임스 정)는 1921년에 상항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한 후 이듬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사를, 그 이듬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문학사를 취득하였고,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1924년 유럽을 거쳐 한국에 귀국한 정인과는 목사, 교육가, 사회사업가로 활동했고, 해방 후 '대한의 가락 유다'라는 별명이 붙은 채 한때 새소망과 아원 원장을 역임하긴 했으나 교계를 완전히 떠나 숨어 살다가 1972년에 사망했다. “정인과와 그 시대”의 저자 민경배는 교회를 수호하고 민족정신을 이어가다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그에게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의 모습을 본다.

damien.sohn@gmail.com

##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인종차별주의.

#### <2면에서 계속>

이런 흐름은 최근 화제가 된 뉴스의 숨어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테러트가 작성한 “선언문”에는 이민자들의 “침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미국 캘

리포니아 주 유대교 예배당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글로벌 유대인 엘리트들”이 미국의 인종적 구성을 바꾸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다.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 총기 난사 용

의자 역시 유대인들의 조직이 “적대적인 침략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다고 믿는다.

투자계 거물인 유대계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에서부터 미국 남부에 이르기까지 극우파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음모”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내무부 장관의 입에서 “이민자들의

침략”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들은 아이덴티티언들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런 현상은 오스트리아에서나 미국에서나 경찰들에게 달레마를 던진다. 셀너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단체가 테러를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도 셀너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들

이 폭력을 유발하는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셀너는 미국 입국을 금지 당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던지는 질문들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디지털적인 문제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gan.org Tel. (82)2-499-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암울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야예배: 오후 9:00</p> <p>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9-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예언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절이름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www.seongsil.or.kr Tel. (82)2-996-996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142-073)</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1동 713-26호</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봉곡동 416-4(404-270)</p>	<p><b>승중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창동 137 번지</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82)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고동로 17길 29(잠실동)</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3142-6080, Fax. (82)2-3148-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eon.org</p>	<p><b>안암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1길 50-1 www.anamjeil.or.kr</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원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b>청주주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p>

## 리더십 코멘터리 (89)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비전과 겸손으로 이끄는 소명리더십

리더는 리더십을 재생산하는 사람이다

소명리더십의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이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명리더십을 전파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리더십이 재생산된다. 또한 성경은 소명리더는 훈련받은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이고, 충성된 자여야 하며,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자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성숙의 과정을 겪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리스천 리더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소명은 궁극적으로 리더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가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리더로서 세워진 소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은 리더들이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해야 할 때이다.

리더가 소명을 확인하는 단계

①소명을 확인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내

능하다. 기회는 리더십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리더의 소명을 이루는 솔루션

①비전을 제시하라: 기독교 리더십에 있어서 비전이란 소명을 실천하는 메인 키이다. 비전은 리더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미래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분명한 그림이다. 리더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해 헌신 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난관이 있어도 당당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출발은 거창했지만 비전을 상실했다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값진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②사랑을 실천하라: 기독교 리더십에서 소명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거나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랑을 기초로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셨다. 사랑으로 대하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사랑을 기초로 한 리더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③겸손이 기본이다: 리더의 평온은 겸손으로 육성되며, 겸손을 통해 삶의 확장

### 내적 감동, 공동체 확인, 기회로 소명 확신 하나님 뜻, 명확한 비전, 섬기는 겸손 발휘

조직사회와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떤 공동체에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통일된 조직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핵심적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 차원에서 일반리더십은 조직경영과 이윤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십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말할 때에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세속적인 요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리더십은 소명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충실한 리더들을 세워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소명 받은 리더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목표를 세워나가기 위해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하여 거기에 대한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 감동이다. 대개의 경우 내적 감동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명리더는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된다. 이것이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러한 내적 감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②소명을 확인하는 두 번째 요소는 공동체의 확인이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안수와 같은 종교적 의식은 소명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아무리 내적 감동이 크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명은 존재할 수 없다. 소명리더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내적 감동을 확인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욕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리더의 소명에 대해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공동체의 확인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새롭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다.

③소명을 확인하는 세 번째 요소는 기회이다. 기회는 공동체의 확인이나 파송과 마찬가지로 소명리더의 내적 감동을 확인시켜주는 요소이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소명을 실천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겸손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를 이루게 된다. 겸손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라

리더가 소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무대어지고 권태로워져서 불만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소명을 받은 리더의 가슴 속에는 확신과 권태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확신이 승리하면 사역의 영역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권태를 새로운 자극제로 이용하신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확신하며 부르심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라.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표류하는 갈등보다는 명확한 비전을, 세속적인 권위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섬기는 겸손을 발휘해 나가길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원로칼럼

###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참는 것. 이것은 더 어렵다. 들고 참는 것은 내 안의 작심과 결단으로 가능하다. 내 안의 문제이며 내 정신세계의 문제다. 그러나 꺼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도 고슴도치처럼 가시투성이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이어서 더 힘들다. 그러나 품지 못하면 타인이 되고 적이 되고 만다. 평생 목회를 되돌아보면 이 부분이 약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헤쳐 나온 지난날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다 들어 주고 쓰리고 아파도 참고 온 동네를 다 품고 싶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바보가 되고 싶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실적 1위를 달리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에 발생한 급발진사고로 시장점유율이 추락했다. 총 8백만대 이상의 리콜에 손해액은 1억엔(1조원) 정도였다. 사건이 그렇게 된 원인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견됐다'라는 고객들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듣고, 참고, 품고!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양육 목회

목자의 책임은 양털 옷 입고 양가죽 신발 신고 양고기 먹는 것이어선 안된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고 키우는 것이다. 양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어렵다. 병들어 아파하면 고쳐 주고, 길 잃으면 인도하고, 배고파하면 먹이를 주어야 한다. 언젠가 양은 털을 내놓고 고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목자는 털과 고기를 탐하면 안 된다. 털과 고기와 기름은 곧 돈이긴 하지만 목자가 눈이 어두워 시도 때도 없이 양을 도축한다면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키워야 한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르고 신뢰해야 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던 주의 음성이 들린다.

양을 양답게 키우는 목자가 있고, 양을 몰랑 가지로 취급하고 키우는 목자가 있다. 사이비나 이단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양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리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키우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이 숨쉬는 야기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신학교를 세우고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사람을 키우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현실 때문에 기독교학교들은 허울뿐,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신학교도 운영과 제도에 발목이 잡히고 과정과 커리큘럼에 갇혀 한 국교회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교육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꿈도 있다. 그것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목회자와 신학자 양성은 물론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 정치, 문화, 예술, 과학, IT,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될 나무들을 묘목부터 키우고 전 세계 대학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싶다. 그 나무들이 곧고 바르게 자라 20-50년이 지나면 국가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런 꿈이 이뤄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70세 정년을 3년 앞둔 대형교회 어느 목회자의 말이 생각난다. “이제야 목회가 뭔지 조금 알 것 같다.” 목회 성공했노라고 큰소리치는 것도, 목회를 잘했다고 포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최선을 다했음 뿐이고, 주님 바라기의 삶을 살았음 뿐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고백이라야 한다. 이제야 철이 들었다면 언제 어디다 쓸까?

동역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목회는 완성이 없다. 다시 시작한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iamcspark@hanmail.net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앨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DNA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위, 유, 연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 연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영리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일 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화), (254)501-4933(목)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베이크스펠드 아름다운교회)

##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영적 의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매우 헌신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런 영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헌신적인 활동들을 신앙생활의 큰 위와 만족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그런데 당신은 영적 의무를 감당하기 전에 더욱 중요한 의무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

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일이다. 필자는 한때 목회자로서 영적 의무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의 온몸이 매몰되는 듯한 불타는 헌신으로 사역을 하였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자의 마음에 영적인 의무들을 감당 하려고 하는 외적인 헌신적 활동에 비해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자로 하여금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게 하셨다. "이제 다시는, 정말 정말 다시는 저의 목회를 위한 목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진실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목회를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고백의 기도는 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필자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헌신적인 활동들을 신앙생활의 만족의 근거로 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떤 헌신적인 활동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을 얻고 싶어 하신다. 미가서 6장에는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말씀이 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와 수천 마리의 수양과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과 심지어는 만아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의 제물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일라고 말씀하셨다. 독일계 신학자이면서 성경주석가인 프란츠 델리치(Franz Delitzsch)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아, 이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인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동서남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의 찾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라니 말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당신의 영혼을 상패하도록 새롭게 하는 성령이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오는 천상의 희열을 누리는 경험을 해보라.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성령의 충만한 잠김을 통하여 천상의 희열을 누릴 때 하나님은 비로

소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만족을 누리실 것이다. 현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의무를 감당하다가 점점 지쳐만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성실 그 이상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천상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불붙은 헌신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가지기 위하여 말씀묵상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로 진정으로 나아가라.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찬양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영혼에 동시에 성령의 불이 붙을 것이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얕은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될 것이다.



NCKPC 제48회 총회 및 전국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청소년연합수련회.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제3회청소년연합수련회 단체사진

##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NCKPC 제48회 총회 및 전국대회 총회장 최병호 목사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제 48회 총회 및 전국대회가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골2:32, 롬 11:4-5)라는 주제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플로리다 올랜드 로센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PCUSA 총회장 신디 콜만 목사, PCUSA내 보수그룹인 헬로우신 전 회장 제리 앤드류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등이 주강사로 참가했다. 21일 오후 7시 환영 및 인사의 시간은 사무총장 박성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동영 목사(지역준비위원장)와 데니얼 윌리엄스 목사(중앙FL노회 총무)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주강사 등 내빈 소개가 진행됐다. 타 교단 대표로는 림형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병호 목사(재일대한국기독교회 사무총장) 등이 인사했다.



총회장 최병호 목사

이러진 여는 예배는 최병호 목사(차기총회장) 인도로, 경배와찬양 임무영 목사, 기도 김영철 장로(부총회장), 특별찬양 문미란 집사, 설교 원영호 목사(총회장), 성찬식, 봉헌기도 김일 장로(회계), 소천 받으신 회원의 추모 이유신 목사, 축도 천방욱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원영호 목사(새장로교회)는 골2:32, 롬 11:4-5를 본문으로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라는 총회 주제를 설교했다. 원영호 목사는 “47대 총회장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겪었다. NCKPC가 코커스로 바뀌어서 2년차로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또한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바뀌어가는 시대와 함께 세상 가치관의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기독교인들이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변화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

큰 복음주의자 모임인 FC(Fellowship Community)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NCKPC 제48회 총회 및 전국대회는 회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세미나, 그리고 휴식이 잘 조화되어 있다. 화요일 저녁 개회예배에는 원영호 목사(NCKPC 총회장), 수요일 아침 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목요일 아침 유승원 목사(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목요일 저녁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 금요일 아침 김병규 목사(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23일 저녁 임원선거에서 지난해 차기총회장에 당선된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또 단독 입후보한 이재호 목사(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가 차기총회장 후보로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최병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NCKPC가 미국장로교단의 구명정이 되길 소원한다”며 “△NCKPC가 한인교회의 권익을 추구하는 교단의 한인 지도자들이 교단의 주역으로 진입하는 일을 추진하고 △NCKPC가 교단내 다른 인종 코커스와 연합해 수인종교회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NCKPC가 교단 안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NCKPC는 PCUSA안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의 모임이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새 임원을 선출하고, 비전설정과 친목을 해 나간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성애 이슈가 한풀 꺾인 분위기. 미국장로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가 회원 교회들의 무관심으로 재경년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2019년 별세한 목회자는 김여진 목사, 김철환 목사, 문동환 목사, 서준덕 목사, 이길부 목사, 정용철 목사 등이다. (기사제공: NCKPC)

##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청소년연합수련회

7월 22일(월)~24일(수), 강사 데이빗김 목사

남가주 지역의 유일의 초교과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금년에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 주관으로 7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열린다. 이 수련회는 지난 2016년 첫 회를 가진 이후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기 힘든 교회들을 위해 4회째 개최되고 있다.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상황, 학생 부족, 교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시기에 영적 도전을 주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해주는 수련회를 그냥 외면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은 나성순복음교회와 함께 남가주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매년 이 청년 수련회를 7월중순에 개최하고 있다. 금년 주제는 ‘믿음에 굳게 서

서(Stand Firm in the Faith)’이며 장소는 국제금식기도원, 등록마감일은 오는 6월 21일(금)까지다. 이번 수련회 강사는 데이빗 김 목사(버지니아 호프웰순복음교회)이며 장소는 국제금식기도원, 등록마감일은 오는 6월 21일(금)까지다. 이번 수련회 강사는 데이빗 김 목사(버지니아 호프웰순복음교회)이며 장소는 국제금식기도원, 등록마감일은 오는 6월 21일(금)까지다.



## 뉴욕 첼시 K&P갤러리 우소라 사진전

사진작가 우소라의 전시회가 ‘Life Companion’이라는 주제로 뉴욕 첼시, K&P 갤러리에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린다. 작가 우소라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지난 2015년 미국 명문 미대인 스크올브러주얼아

트(SVA)에서 사진과 학부를 마치고, 2018년 프랫(Pratt) 학교에서 순수미술 사진학과에서 장학금을 일부 지원받으며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Trestle Residency 프로그램에 거쳐 brooklyn art cluster에서 Residency를 참여하며 브루클린에서 작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 첼시, K&P gallery 갤러리에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전시되고 있는 Life Companion 시리즈는 전시가 끝나는 대로 6월부터 8월까지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사진 미술관인 Griffin Museum of Photography에 속한 온라인 갤러리인 the Virtual Gallery에 약 두 달간 전시될 예정이다(https://griffinmuseum.org/upcoming-exhibitions/). (정리: 박준호 기자)

## 미주최초 여자대학 동문합창단

이대남가주동문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문합창단(단장 안혜숙, 지휘 이종현)이 주최한 제 14회 정기연주회가 25일 오후 7시 지퍼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안혜숙 단장은 “2003년 미주 최초의 여자대학 동문 합창단으로 시작된 본 합창단이 모교 창립 133주년을 맞이해 정기연주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연주회를 빛내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주신 동문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연주회가 잊지 못할 귀한 연주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회숙 목사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 ‘오직 주님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 성가곡과 ‘두껍아 문지기 주제에 의한 합창’, ‘오빠생각’, ‘동무생각’ 등 민요 ‘최진사택 셋째 딸’, ‘행복을 주

는 사람’ 등 대중가요를 불렀으며 ‘고향의 봄’과 ‘I love you Lord’를 앵콜곡으로 불렀다. 또한 테너 전용철과 소프라노 린지 팰드매스 웨스트라가 특별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이날 연주회는 본교 교가를 다함께 부르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이대동문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청중들이 이종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함께 동요를 부르고 있다

# 동부교계 게시판



## 동부개혁장신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3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졸업식에는 목회학석사 10명, 기독교교육석사 1명, 여교역학과 1명, 신학사 5명 등 총 17명이 학위를 받는다.

▲문의: (718)463-7163

## 퀸즈장로교회 VBS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2019 여름성경학교(VBS)가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영아부는 29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열린다. 주제는 "ROAR".

▲문의: (718)886-4040

## 뉴욕장신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

해외한인장로교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학장 이기백 목사, 이사장 이은희 박사) 제 35회 학위 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6월 9일(주일) 오후 6시 하나님의사랑교회(정석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374-2432

# 할렐루야대회, 선교축제 상호협력 다짐

## 뉴욕장로연합회, 뉴욕교협 임원 초청 간담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5월 20일 뉴욕교협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5시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와 부회장 양민석 목사, 서기 이창중 목사, 부서기 정대영 목사, 여성총무 안경순 목사, 교협이사장 손성대 장로가 참석했으며, 장로연합회 회원 16명이 참석했다.

김주열 장로가 인도한 1부 기도회는 이보춘 장로의 기도, 배상규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와 여호수아 8장 10-23절을 본문으로 "승리하는 자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을 전했다.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2부 초청 간담회는 손성대 장

로 사회로 회장 김영호 장로의 환영 인사, 교협 부회장 양민석 목사의 격려사, 정순원 목사의 교협임원 소개가 있었고, 서기 이창중 목사가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장로연합회 활동계획은 정경식 장로가 설명했으며, 특별히 장로연합회 핵심 행사인 다민족 선교 축제의 진행 상황을 준비위원장 송운섭 장로가 추가 설명을 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신승룡 장로가 광고, 김주열 장로가 장로연합회와 교협이사회의 합동 춘계 나눔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백달영 장로가 마침 및 만찬 기도를 했다.

이어 기념촬영 후 만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설립 6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되라!"

##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설립 6주년 감사예배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가 설립 6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 동교회당에서 열린 예배에서 담임 정기태 목사는 뉴욕새벽별장로교회의 설립과정을 언급하며 "동문과 선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불러주셨다"며 "특히 퀸즈장로교회 원로 장영춘 목사님께서 설립예배와 부흥회 등을 인도해주셨다. 퀸즈장로교회의 사랑에 감사하며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회원목사들이 순서를 맡았다. 기도는 임병순 목사(뉴욕주은혜장로교회), 축사 문종은 목사(새영장로교회), 축도는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가 했다.

김성국 목사는 "안디옥교회"(행11:26)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새벽별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은사가 발견되는 교회, 말씀으로 다져지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했다.

김 목사는 또 "각 지점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자"고 격려했다.

문종은 목사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된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축하했다.

권면을 맡은 이수영 목사(등대교회)는 개인적으로 정기태 목사의 매형으로, "믿음의 마음 보를 크게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한편 축가는 이재원 집사(뉴욕장로교회), 헌금특송은 정승훈 형제, 애잔기도는 이숙규 목사가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가 초청한 뉴욕교협 임원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춘계 아우회 갖고 친목 도모

## 뉴욕장로연합회와 뉴욕교협이사회 합동

뉴욕장로연합회와 뉴욕교협 이사회의 합동 춘계 아우회가 5월 25일 롱아일랜드 선킨 메도우파크에서 열렸다.

총 26명이 참석한 김주열 장로 인도로 송정훈 장로의 기도 후 교협 이사장 손성대 장로가 강사 소개를 했다. 이날 말씀은 간증집회 차 뉴욕을 방문한 김학주 장로(예비역 중장, 육사교 회 선임장로)로 요한복음 6:1-15을 본문으로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차세대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라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이어 장로연합회장 김영호 장로의 인사말과 교협 이사들 소

개, 김재관 장로(뉴욕장로성가단장)의 마침 및 식식기도 후 교협 이사회가 준비한 푸짐한 오찬을 나눴다.

식사 후 정권식 장로가 준비한 페널티 게임을 하며 축구 실력을 뽐냈으며 상품도 받는 기쁨을 나눴다.

또 해변 보드워크를 함께 걸으며 친목을 도모했다.

참석자들은 "많은 인원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5월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영적 휴식을 하는 즐겁고 보람된 하루였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이사회)



뉴욕장로연합회와 뉴욕교협 이사회의 합동 춘계 아우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 뉴욕총신대원 26회 학위수여식, 총 7명 졸업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정익수 목사) 제 2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5월 19일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거행됐다.

1부 예배는 이사장 하경빈 목사의 인도로 조성길 교수의 기도 후 신천기 박사가 왕상 2장 6-11절을 본문으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란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2부 학위수여식은 학장 윤성태 박사 사회로 교무처장 박희근 박사의 학사 보고가 있던 후 총장 정익수 박사가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박사: 하영빈 목사  
△기독교교육학 박사: 이대길 목사  
△목회학석사: 이명희,

이성현, 이케빈 △신학사: 강영미, 송홍승.

우수상은 △대학부 강영미, 송홍종 전도사에게 주어졌으며 △대학원과정은 이성현 전도사가 총우수상을 받았다.

이어서 총장 정익수 박사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모자이크교회 담임 장동일 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조공자 교수의 축축이 있었으며, 이민철 교수의 광고 후, 총장 정익수 박사의 축도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한편 하객 모두에게는 답례품이 나누어 주었다.  
(기사제공: 뉴욕총신대학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h3>뉴욕몽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08:45 주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3>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주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30 주요성경공부: 오후 11:15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예배: 오후 8:30 주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후 1:30 영양예배: 오후 12:30 주요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7:30</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주미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a.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30 주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3> <p>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p> <p>Tel. (52)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p>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폴란드 간 아이들 영화상영 및 추상미 감독 간증집회에서 추상미 감독이 간증하고 있다

### 추상미 감독 간증 및 영화제작 소개 나성영락교회,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 상영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상영 및 본 영화 감독한 추상미 감독 간증집회가 25일 오전 9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본 영화는 폴란드의 작가 올란타 크리스바타의 르브 형식 실화소설 '천사의 날개'를 근간으로 추상미 감독이 메가폰을 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영화는 1951년 한국전쟁 고아 1,500명이 폴란드 남서부 시골 마을 프와코비체 양육원으로 비밀리에 보내져 폴란드 선생님들에 의해 교육을 받게 된다. 폴란드 교사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마마', '파파'라 부르며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8년 후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북한송환 명령을 받게 됐으며 2018년,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금까지도 폴란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역사 속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슴에 남아있는 위대한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추상미 감독과 탈북 소녀 이송, 남과 북 두 여자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담았다.

추상미 감독은 "어린 시절 유명한 명배우인 아버지의 분주한 삶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족간의 행복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상처가 됐다. 14세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았다"며, "고3때 신앙을 가졌고 20년간 배우로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출산후 산후우울증으로 5년간 시달렸으며 모든 상처들이 우울증과 함께 몰려왔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내가 너의 남편과 아버지인데 왜 죽음을 묵상하느냐"는 음성을 들려

주시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감독은 "주님과 연합된 체험을 한 뒤 기쁜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기쁨과 행복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됐다"며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화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다. 어느 날 후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천사의 날개'라는 자료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추 감독은 "영화 개봉 후 언론사 기자들이 탈북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탈북민에 대한 기사를 계속 쓰게 됐다"며 "남한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진다면 그들은 북한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 말했다.

추 감독은 "남한 사회는 정치적 분열상태에 있다"며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영화를 함께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됐다. 이는 영화가 진영논리로 나뉘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화해하는 역할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추상미 감독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주인공은 폴란드 교사들이었다면 영화로 만들어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라며 "영화제작을 하는데 총 6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영화를 통해 한반도가 북음통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다뤄지게 될 것이다.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하브루타로 다음세대를 깨워라' 나성영락교회 뉴빌세미나



나성영락교회 뉴빌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이성준 하브루타문화협회 이사가 강연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하브루타로 다음세대를 깨워라'라는 주제로 뉴빌세미나를 25일 오후 2시 본 교회 소망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성준 하브루타 문화협회 이사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열렸다.

이성준 이사는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운동이며 부모의 회심운동"이라며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세대간 신앙전수다. 반면 한국의 하브루타는 교육과 관련된 토론"이라며 한국과 유대의 하브루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세대간 신앙전수 실패가 한국교회교육의 문제"라 꼬집으며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이 담겨있다. 하브루타는 정체성을 알리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뿌리문화를 강조했다"며 "하브루타의 정신은 자녀는 부모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고 "이방선교가 중요하고 모든 민족 제자삼기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내 자녀를 제자삼는 것이다. 자녀를 제자 삼으려면 먼저 부모가 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준 이사는 "하브루타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청소년 비영리단체 Give2friends 음악밴드가 정기 연주회에서 Give2friends 음악밴드 연주에 맞춰 청중들이 함창하고 있다

### 청소년 비영리단체 Give2friends 음악밴드 정기 연주회... 베이비박스 사역 돕기

청소년비영리단체 Give2friends(대표 앤드레이최) 정기연주회가 24일 오후 7시 라카나다장로교회(제프 호프메이어 목사)에서 열렸다.

앤드레이최 대표는 "7년째 Give2friends를 운영하고 있다"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오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돕기 위해 연주회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박수빈, 이제인, 이 다니엘 학생의 트리오, 박수빈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 Give2friends 음악밴드(지휘 장민희) 등이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회 게시판 West

### 목회자와 크리스천리더 코칭 세미나

미주목회자 성경연구원(GMBI America)은 제 8차 코칭 세미나 임문반(Coaching Clinic)을 부에나파에 있는 새시대교회(정중환 목사)에서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갖는다.  
▲문의: (714)380-0030 John Lim

### OC한인회관 건립기념 축하음악회

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종대 장로) 건립기념 축하음악회가 6월 1일(토) 오후 7시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라크마과와이어&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콰이어, 아리랑 합창단이 출연하며 특별게스트로 피아니스트 장성, 테너 오위영, 로버트 맥 넬, 호세 마누엘 추,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문의: (714)530-4810

### 인랜드교회 장학생 모집

인랜드교회(안환 목사)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남가주 지역 거주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생 △신학생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인랜드교회 홈페이지(www.inlandchurch.org)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은 6월 20일.  
▲문의: (909)622-2324

### 성가대 반주자 모집

LA온누리교회(이정영 목사)는 주일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또는 경력자이며 약간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문의: (213)700-3159

### KITA 장학생 선발

한국사자지사협회(KITA)는 2019년 제2회 KITA 장학기금 장학생 신청서를 받는다. 수혜대상은 중고교 및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으로 최근 1년간 GPA 4.0만점에 3.3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장애인인 경우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본인 소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2매다.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 이상은 1인당 1,500달러, 중고교생은 500달러가 지급된다.  
▲문의: (323)939-9500, info@kita.com

### 빅토밸리복음교회 선교훈련

빅토밸리복음교회(김은호 목사)는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빅토밸리 지역 선교훈련을 6월 12일(수)부터 15일(토)까지 실시한다.  
▲문의: (213)275-8863

### 담임목사 청빙

하이데저트 중앙교회는 이창록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새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문의: (760)605-3979

### 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 예배당 이전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홍운 목사)가 예배당을 이전한다. 새로 이전하는 곳은 미라메사장로교회(Mira Mesa Presbyterian Church, 8081 Mira Mesa Blvd, San Diego, CA 92126)이다.  
▲문의: (619)223-9999, 6955

<h2 style="color: red;">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 style="color: red;">서부(CA) 교회안내</h1>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cus@yahoo.com / www.lafcus.com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9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회)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수-토)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선</p> <p>Tel. (714)446-6200, www.gracemj.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cca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l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3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재우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 동성애퀴어축제반대 페스티벌 개최

동성에 행사를 반대하는 이들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젊은 축제를 표방하며 맞불 집회를 한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이주훈 목사, 이하 준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성에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와 러플(러브플러스)페스티벌을 대한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같은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는 종교적 분위기보다는 국민적 축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과 어린이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스티벌 개최의 목적을 이

렇게 정한 데는 지난 13일 쉼어론조사공정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한몫했다. 조사 결과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과 성인용품 전시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시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장소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73.6%를 차지했다.

이주훈 회장은 “(동성애자들) 그들의 인격은 보호해야 하지만, 죄는 짓지 못하게 권면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회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퀴어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을 예외 싸는 인간 따를 만들 생각도 하고 있다”며 “청소년과 가족 단

위의 시민들이 광장을 지나며 퀴어축제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회 측은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는 대한문 광장을 시작으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세종문화회관 일대를 돌며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대한문 광장에서 가수 쏘킴의 공연 등 러플페스티벌이 진행된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오전 박성제 변호사 등 준비위원회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형오차별대응기획단을 항의 방문했다. 박 변호사 등은 이 자리에서 인권위의 불공정성에 대해 항의하며 현재 인권위 건물 15층 난간에 게시된 무지개 현수막 옆에 준비위원회 현수막도 함께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퀴어축제 행사장 내에 인권위 부스가 설치되는 것처럼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장에도 똑같은 부스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퀴어축제 맞서 ‘홀리 페스티벌’ 개최

### 홀리라이프 탈동성애 운동, 교계·시민단체 공동

탈동성애 운동(ex-gay movement)을 벌이는 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는 29일부터 ‘제6차 2019 홀리 페스티벌(Holy Life Festival, 거룩한 삶의 축제)’을 진행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에서 방한하는 탈동성애 크리스천들이 29일 저녁 경기도 하남 사자교회(하다니엘 목사)에서 간증집회를 갖는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제일교회(송기성 목사)에서는 ‘제12차 국제탈동성애 인권포럼’이 열린다.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문화축제인 ‘퀴어축제’에 맞서 다음 달 1일 서울 정계전 일원에서 ‘제2회 하모니문화축제’

제2회 프리덤 마치’ 행사를 연다.

8월 4일 오후 2시 부산 부전교회(박성규 목사)에서는 ‘제13차 국제 탈동성애인권 부산 포럼’도 진행된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개최 발원문에서 “이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소수자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삶을 창출하기 위해 ‘거룩한 삶의 축제(Holy Life Festival)’를 제창할 때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홀리라이프 운동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로 동성애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한 회복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라며 “성령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하늘 문

을 열고자 하오니 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했다.

‘탈동성애 운동’은 동성 간 관계를 시작하거나 추구하지 말라고 권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과거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를 벗어난 체험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없애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2019 홀리페스티벌에는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 건전신앙수호연대, 강화은혜교회, 교회와인, 그물집는사람들, 신촌아름다운교회, 사자교회, 테라이트, 동방박사, SFC문화선교, 컬처리더스, 뉴라이트순복음, 행복한윤리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교회와 신앙인이 환경보호·교육 앞장서자”

### 한장총, 첫 기후변화 대응 포럼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교회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등의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27일 서울 마포구 서진교회(백철호 목사)에서 ‘제1회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보수적 연합단체인 한장총이 기후변화를 주제로 포럼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영수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플라스틱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 총합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큰 그림에서 지구온난화는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해 총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해 수온이 올라가고 이것이 북극과 북동아시아의 기압 배치를 교란해 계절풍을 약화시켜 대기 정체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온난화와 대기오

염물질 주범인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등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가가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이동수단 장려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 학교 교회 등 시민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며 “교회와 신앙인부터 파트너십을 이뤄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정성운 전 성결대총장, ‘한국성결교회 백년사’ 편찬들 비리 의혹 제기

주요 인물의 부일 행보와 교단 분열 등 한국성결교회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감 없이 기록한 역사서가 나왔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문정민 목사) 백년사 편찬위원회가 최근 펴낸 ‘한국성결교회 백년사’(김덕복스)는 ‘성결교회와 역사연구소’ 소장 정성운 전 성결대 총장이 대표 집필자로 참

보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국내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와 중국 난방시기(11~3월)가 맞물려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교회에서의 환경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먹을거리와 물, 에너지는 현재 인간의 구분별한 소비로 거의 절멸 상태”라며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빈곤계층과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에서 자연을 이웃 삼는 환경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해 1907년부터 2007년까지 100년간의 한국성결교회 역사를 다뤘다.

특히 교단 지도자의 친일 행위 단락에서는 연표를 작성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상세히 적었으며 정 전 총장은 2001년부터 18년간 이 책을 집필했다.

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이사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행동은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이날 김 이사장과 유일학원 이사들의 채용비리 및 산학협력관 건축 관련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매각반대연대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후로 사학비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접촉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 “종교적 편향을 예의로 둔갑시켜 강요치 말라”

### 한교연, 황교안 대표 관불의식 논란 논평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관불의식 논란에 대해 23일 논평을 내고 “종교적 편향을 예의로 둔갑시켜 강요치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계종 총교평하위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남을 존중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립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황 대표 개인을 위해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합장은 엄연한 불교의식이며 불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식을 따라하는 것은 목적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해 시늉을 하는 것일 뿐 진정한 예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립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라”고 훈계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월권이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지나

## “공격적 선교방식 건강한 선교 걸림돌 될 수 있어”

### 시니어 선교사들 인터콥 선교회 관련 공개토론 제안

시니어 선교사들이 인터콥 선교회의 공격적 선교방식이 건강한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선교 열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인터콥의 선교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민영(인터서브 국제이사) 순창남(해외선교단) 한철호(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선교사는 최근 팟캐스트 ‘선교는 언제 하나’에서 중국 정부가 2017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살 사건의 배후로 인터콥을 지목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인터콥 연루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내 한인 선교사들의 입

지가 불안해졌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교사 추방이 일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인터콥 선교’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선교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민영(인터서브 국제이사) 순창남(해외선교단) 한철호(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선교사는 최근 팟캐스트 ‘선교는 언제 하나’에서 중국 정부가 2017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살 사건의 배후로 인터콥을 지목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인터콥 연루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내 한인 선교사들의 입

론 선교사가 무엇인지, 열정만으로 선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선교 원리를 비롯해 선교단체의 기능이나 역할도 가르쳐야 한다”면서 “교인들에게도 어떤 단체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내해 무리한 선교활동에 빠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바람직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열정만으로 선교한다면 하나님의 선교 질서를 파괴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하나님의 선교란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교회(선교사)를 선교의 도구로 보는 선교 이론을 가리킨다.

인터콥은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들은 인터콥이 파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선교사는 “교인들에게 바

## 정통 찬송가로 한국교회에 “새 활력”

###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찬송가회복운동 앞장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이 ‘한국교회 찬송가 회복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교회 공예배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데도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공인되고 은혜롭게 불린 정통 찬송가가 교회강단에서 많이 불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가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악기 사용이 너무 일반화되고 예배의 경건성이 많이 퇴색되고 있어 이를 회복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정통 찬송가만 부르는 음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이를 기독교 TV 채널을 통해 방영함으로써 찬송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은혜를 끼쳤던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극동방송, CTS, C채널 등과 연계해 정통 찬송가 소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캠퍼스 야외공연장 및 실내공연장에서 찬송가만 연주되는 음악회를 여러 차례 주관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공연들은 기독교 채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방영됐다.

특히 지난 4월 20일에는 어린이찬송가음악회를 열어 명성교회 새에덴교회 등 어린이합창단 5곳과 유스오케스트라가 어린 시절 열심히 불렀던 찬송가 30여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방송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C채널을 통해 이날 4~6일 3차에 걸쳐 방영됐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적극

적인 찬송가 회복운동은 교계 방송 언론사에서 찬송가 방영 비율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각 교회에서도 공예배 준비 찬송과 성가대 선곡 등에서 찬송가 비율을 높이고 있다.

김희철 서울 명성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성가대와 찬양단을 초청해 찬송가 음악회를 열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한국교회 찬송가 열기가

치게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것도 짚었다. 한교연은 “과거 일부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합장을 했는데 황 대표가 합장을 안했으니 잘못했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분명 의도성을 가진 편향적 보도 태도”라며 “종교의 자유와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고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므로 그 어떤 선례라도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사회가 소아적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기보다 종교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균형과 조화, 질서 안에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른 선교가 무엇인지, 열정만으로 선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선교 원리를 비롯해 선교단체의 기능이나 역할도 가르쳐야 한다”면서 “교인들에게도 어떤 단체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내해 무리한 선교활동에 빠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바람직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열정만으로 선교한다면 하나님의 선교 질서를 파괴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하나님의 선교란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교회(선교사)를 선교의 도구로 보는 선교 이론을 가리킨다.

인터콥은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들은 인터콥이 파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되살아나고 있다”며 “침체된 한국교회에 찬송가로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 오후 4시에는 ‘찬송 hymn)페스티벌 시즌 3’가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캠퍼스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유나이티드싱어즈를 비롯해 문화교회글로리아 찬양대, CTS콘서트드라이어, 코리아챔버싱어즈, JW코렐, 크리스찬코랄, 유나이티드유스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정통 찬송가만 합창으로 부르거나 연주하게 된다.

## 오컬트물 현상에서 찾는 청년 목회 해법

### 이민형 보스턴대 실천신학박사, 문화목회 이음세미나

검은사제들 곡성 사바하 사자 클로젯 변신. 모두가 오컬트물 영화다. 이민형 보스턴대 실천신학 박사는 이 영화들로부터 청년 목회의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예장문화법인 허브에서 주최해 서울 송파구 수동교회(정기수 목사)에서 28일 열린 ‘문화목회 이음세미나-문화목회와 청년: 청년을 애정하다’에서다.

이 박사는 오컬트물이 왜 오늘날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2016년 한국 사회에서 유행한 ‘헬조선’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았다. 현실을 악으로 규정된 사회 인식 자체가 오컬트물에 반영이 됐다는 것이다. 오컬트물에서의 악은 이유 없이 인간을 괴롭힌다. 이처럼 이 사회가 왜 청년들을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노력해도 취업이나 결혼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절대악 같은 현실이 곧 오컬트물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까. 이 박사는 사바하라는 영화에 주목했다. 그 영화 속 4명의 주인공 중에서 목사의 캐릭터가 가장 신비감이 없다. 그는

직접 세미나에 온 목사들에게 물었다. “열혈사제, 열혈목사, 검은 사제들, 검은 목사들 중 어느 제목이 더 신비감이 있는가”라며 “신비감이 떨어진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교 안에서 ‘개신교’가 가장 신비감이 없다는 것은 대중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신비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컬트물이 유행하는 초자연적인 현실에서 신비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 험난한 현실과 괴리감에서 청년 목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며 “청년들에게 줄 힘은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로 어벤저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제시했다. 어쩔 수 없이 무너진 현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타노스가 있다면 아이언맨은 “나는 나다”를 외치며 1/14000605의 확률로 희망을 찾는다. 이 박사는 “너희를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전했다. 현실 속 무너진 자존감을 하나님은 선물한 나라는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서 청년 사회와 청년 목회의 해답이 있다고 했다.

## 우일학원 이사들 비리 의혹 제기

### 안양대 매각반대연대,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안양대 매각반대연대(대표 김수호)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대학생위원회(위원장 송치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태 우일학원(안양대 학교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동현 안양대 총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양대 학우 전체 4500여명 중 3분의 1이 수업 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교육부는 감사를 실시해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호 대표는 지난달 김 이사장이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 교도소 선교칼럼 (5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격려

나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전과자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누군가 노숙자 보호소를 시작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이 문제를 나누기 위해 아담스 카운티의 재원회의에 참석했다. 나의 발표 이후 한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가 전에 교도소에서 나를 만났다고 하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이 편지는 내가 목사로서 일을 시작한 이후 내가 들은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더욱 나를 격려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누기로 결정했다.

### 영희 맥도날드 목사님께,

나는 목사님을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36년형을 선고 받은 나는 오랫동안 범죄조직에 가담해서 마약매매를 비롯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갔을 때 나의 모든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그 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은 학군 50에서 일하면서 “범죄조직을 180도 변화시키는 대안들”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범죄조직에서 나오도록 돕고 전과자들이 직업과 집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재원회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경탄했습니다. 다만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교도소를 방문해서 나의 간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현재 목사가 되려고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존재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의 경우 진정한 테스트는 출소 후에 시작된다. 자신의 삶을 바

꾸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또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한다. 그는 이제 성공적인 한 사회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점이 정말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 영적 부흥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재소자들의 변화와 그들 사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이다. 사실 이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왜 내가 영적 부흥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1979년에 미국에 온 후 내가 한 가지 간절히 보고 싶었던 것은 영적 부흥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영적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흥미롭게도 나는 교도소에 있는 많은 재소자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끈질긴 기도가 부흥의 기초라고 믿고 여러 주제들로 부흥을 위한 7주간의 기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04년에 내가 시작한 첫 번째 기도 프로젝트는 “우리 영혼의 부흥과 치유”였다.

2006년 말까지 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일곱 개의 주제로 7주 동안 기도 프로젝트들을 인도했다. 그 기간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회심과

세례들이 있었다. 많은 재소자들이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출소 후 사역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의 간증이 책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성령님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치유를 시작하셨다. 어떤 날은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찬송가의 글이 읽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많은 세례로 생긴 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목사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재소자가 말했다. “그것은 재소자들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찬송지가 젖는 바람에 예배 후에 찬송지를 닦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성령님이 많은 재소자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를 시작하실 때 눈물이 나온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으로 울게 된다. 눈물은 우리의 돌 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2007년 1월 초에 주님은 나에게 영적 부흥을 위해 더 기도하도록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로 7주간의 기도 프로젝트를 다시 하라고 하셨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는 기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도 행진,” “거룩한 금식 기도,”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상심한 마음에서의 치유,” “자살 충동에서의 치유,” “용서를 배우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기도” 등 12개의 기도 프로젝트 소책자들을 발행했다.

나는 그때까지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부흥을 어렵게만 보고 있다고 느꼈다.

2007년 2월 기도 프로젝트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내가 부흥의 한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동안 그들의 영적인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최고의 성인들”(필자 저서: 편집자가 영적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주셨다. 사실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편지들이 전국 교도소와 형무소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최고의 성인들” 책을 편집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제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주님, 저를 진정시켜 주세요. 저는 너무 기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기쁨을 그만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기쁨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나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영적 부흥을 교도소와 형무소 안에서 보았다. 재소자 리더들과 성령님의 치유, 능력의 간증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이 하나되어 이루어지는 부흥을 보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영적 부흥을 보여 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다. 이제 나의 기도의 본론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 드라마 구약 (7)



김덕수 목사

성서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의미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라 징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쓰는 역사서인 역대상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 나라들은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온 세계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유대사람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에스겔의 예언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

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원하셨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앞으로 새롭게 일으키실 그 나라의 역사를 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다윗

을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그 첫 장을 펼치면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족보는 실제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시킨 역사서술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역대상하 역사가가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고 싶었던 지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족보의 형식으로 사울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역대상 2:1-2’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호명한 후에, 3절부터는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타고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 상하의 중심인물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 이야기를 사무엘상하에 따로 떼어서 했던 것처럼, 역대기의 중심

인물도 다윗입니다. 다윗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지방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간 이야기는 ‘대상 10장’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장으로 끝나고, 이어지는 11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는 온통 다윗 이야기입니다.



나님의 징계가 그칩니다.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며,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범죄와 실정 부분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의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남방 유다를 타고 가는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을 그 중심에 놓고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는 메시지가기 때문에...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잘못된 내용들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이지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거느리며 각종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짐작이 되시죠?

다윗의 죽음으로 끝났던 역대상에 이어서 역대하는 당연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목록으로 보자면 ‘열왕기상하’의 역사를 남방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이며, 7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정치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르호보암을 타고 남방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하와는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이 지점에서 ‘여로보암을 타고 북방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르호보암을 타고 흘렀던 남방유다 역사는 대하 36장에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났었지요? 그런데,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기는 망한 이후에 70년 포로생활과, 바벨론이 망한 후 바사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남 유다 포로들에게 ‘집에 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되는 포로귀환의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dsukim@gmail.com

## 역대상은 창, 출, 민, 수, 삿, 삼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써 역대하는 열왕기상하 역사를 남방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기록

역대상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1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15-16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17장 10-14절에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는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명이 죽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갖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오르난(아리우나...라고도 하지요)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

사건을 통해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솔로몬이 감당하게 될 성전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에서 드릴 예배의 모든 부분까지 계획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찬양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과 곳간 맡는 자들이 해야 할 일 까지 세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역대상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상의 사울 이야기까지를 족보형식으로 정리하고, 사무엘상하의 다윗이야기를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무려 19장이나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의 내용은 창, 출, 민, 수, 삿, 삼...까

본/사/방/문

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 이용걸 목사를 주제로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박사학위 받은 김대호 목사



김대호 목사. 원내는 이용걸 목사

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 이용걸 목사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통과돼 지난 5월 23일 열린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졸업식에서 김대호 목사(시애틀 찬양교회)가 목회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4일 오전 본지 뉴욕사무실을 방문한 김대호 목사와 논문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용걸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경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멘토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을 쓰면서 김 목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용들이 볼 때마다 도전이 됐다. 이 목사님의 삶이 함께 가는 삶이 됐다. 목회나 설교 준비, 심방 등 목회의 중심적

기능이 됐다. 감사한 것은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신학교나 이민 교회사에 남을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용걸 목사의 목회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한국 목회자로서 이민목회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접목했나?) 개혁장로교회 사건을 통해 고난의 리더십을 배웠다. 이민 교회의 특성을 깨닫고 교제와 친교를 강조했다. 한국적 보수 신앙에 기초해서 이민자를 품어주는 지혜를 갖고 기다림을 갖는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적용하면서 리더십을 통해 사랑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이학인 후암제일장로교회 원로 목사(순교적 신앙),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정문호 목사(신용산교회) 등의 순교적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신앙위에 목양 일념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다. 타인에게는 기다려주는 지혜

로 철저한 신앙의 적용을 이뤘다.

-논문 구성은 어떻게 됐는가?

1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문제점, 지도자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건강한 이민교회의 모델로 이용걸 목사를 선정해 이 목사의 이민전 과정에 대해

“고난을 극복한 리더십, 말씀전파의 리더십, 말씀실천의 리더십 탁월한 신뢰로 운영되는 당회, 철저한 심방에 의한 성도관리”

서술했다. 2장은 이용걸 목사의 리더십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것으로, 고난을 극복한 리더십에 대해 서술했다. 가난과 질병, 지역교회와 교계의 질시 등과 첫발 수인의 질병을 통한 결손. 말씀전파의 리더십, 말씀실천의 리더십, 탁월한 신뢰로

운영되는 당회, 철저한 심방에 의한 성도관리에 대해 서술했다. 또한 부교역자들에게도 인자하며, 은퇴 시에도 모범을 보였다.

3장에서는 한국기독교의 뿌

림 이민교회 양들을 돌봤다는 점을 들었다.

약점도 서술했는데 1. 가정에 소홀한 점(그러나 아들은 목사로 딸은 사모로 키웠으며, 사모님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

적 플랜(조직구성 등)을 잘 못하나 결과적으로는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4장에서는 장로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통계를 냈다. 그 결과 결론은 철저한 보수신앙으로 나타났다.

5장은 결론으로 이용걸 목사의 설교집 15권을 바탕으로 이 목사에 대한 10가지로 결론을 냈다. 1)남을 공허히 여김 2)기도 많이 3)베퐁(선교사, 신학생...) 4)결손 5)지혜(한국목회를 이민목회에 적용) 6)화평(적을 만들지 않는다) 7)건강 8)경건 9)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10)눈물의 사람.

김대호 목사는 경북대 음악대를 졸업하고 대구시향에 재직하다 음악공부하려 도미 메릴랜드에서 음악역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준비 중에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생각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뉴욕제일장로교회에서 지휘하던 중 조성훈 목사(매제, 뉴욕제일장로교회)가 신학공부를 추천해 1999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M. Div, 카운슬링), 2004년 목사안수(웨신 카운슬링 졸업), 2006-2013년 영생교회 부교역자로 재직. 3년전 시애틀(벨뷰한인장로교회)로 갔다가 시애틀한양교회 개척 현재 담임. (유원정 기자)

Z세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하기

처치리더스, 컴, 청년네트워크 사역자 벤저민 칸즈에게 듣는 10가지 전문적 조언

밀레니얼세대는 Y세대라고도 불리며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이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 이런 밀레니얼세대, 즉 Y세대가 부모가 돼 아이를 낳았다. 밀레니얼세대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하는데, 이 자녀세대를 Z세대(Generation Z)라 부른다. 청년 전문사역자 벤저민 칸즈(Benjamin Kerns)는 이제 Z세대를 양육하는 밀레니얼세대 부모들에게 10가지 전문적인 조언을 해준다 (Generation Z...Parenting Pro Tips for Their Millennial Parents).

1. 기술에 관하여

폰을 끌 시간이다. 공유기를 관리하거나, 아이폰의 스크린 타임과 같이 화면사용시간 체크 혹은 온 가족의 장비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앱(Disney's Circle)을 사용할 때다. 당신은 그들이 영아였을 때 당신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야만 한다.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으며 당신은 절대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녀가 성년 되면 부모가치관 90% 반영...18세 이후에도 영향 끼쳐야 자녀 성적보다 마음과 행동에 더 관심...성문제, 영성, 실수 등 살피기

자녀의 성격이 아닌 마음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성문제에 관하여

성 문제는 우리 존재의 핵심 부분이다. 우리의 자녀는 바로 지금 삶의 이런 주요 부분을 성당장시키고 있다.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런 행동이 성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실행을 분리하도록 한다. 우리 모두는 자녀가 서로를 대상화하고 대상화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편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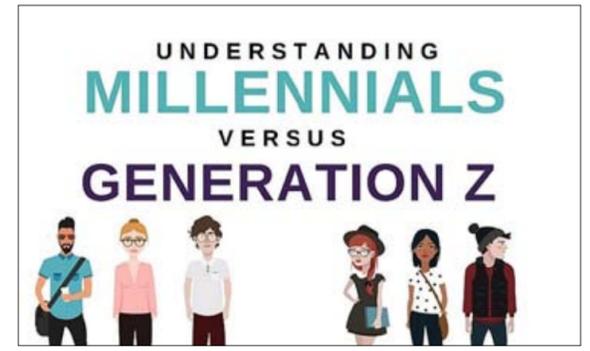
3. 영성에 관하여

교회에 다니는 자녀를 포함

해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통적인 신앙과는 먼 영적 세계관을 지녔다. 진실로 우리는 가치 있는 것들을 자녀들의 입에 끊임 없이 먹여주어야 한다. 운동하면서, 교육하면서, 재활용하면서 강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 환경보전, 성문제, 인종주의, 미투, 이민, 정의, 미술, 음악, 인간의 존엄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루는 데 바른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한다.

4. 쓰레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큰 실수를 많이 했다. 십대와 이십대에 우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를 수 없다. 또한, 자녀와 이를 나눌 필요도 없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 자녀가 성장해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룰 만할 때, 그 때가 나눌 때다. 그리고 당신의 어두운 부분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토대를 만드는 식으로 해야 한다. 성행위, 마약, 음주, 등 당신이 자녀에게 말하

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과거 무엇이든지 확신과 규칙을 가지고 들려줄 수 있다.

5. 자녀의 실수를 막을 수 없다

사실, 자녀를 과보호하면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자녀는 좋든지 나쁘든지, 선택의 결과를 충분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려야 한다. 1학년 수학낙제는 성장에 정말 좋은 것이다. 시도하라. 이로 인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자녀를 구하게 될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새롭게 선포되는 21세기의 천로역정”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던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향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은이 김성국



저자 김성국 목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유독 더 알차게 48시간처럼 살아간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고 기도과 묵상과 심방과 설교준비까지 빈틈없는 일과가 일상화된 루틴 같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꿈 앞에 설렐어 한다.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연합으로 서로를 섬기는 다민족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도와 함께 '내가 만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를 절로 찬양하며, '어머니'란 말 앞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때론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때론 선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때론 '복음 앞에 오직 승리'하는 전략가의 지밀함으로 그의 일상은 영성을 노래한다.

-편집자 주 -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동부개척장로회 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  
단비 TV 이사  
(전) 해전대학 교수 및 교목실장

히즈핑거 (His Finger)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 영어로 보는 성경 (20)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Job 1: 20,21

20)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21) and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NIV 1984)

### WORD & IDIOM

\* at this: 이에(이 말을 듣고) \* tore: (tear의 과거형) ~를 찢었다 \* robe: (길고 험거운) 긴 옷 \* shave: 면도하다 \* fell to the ground: 땅에 엎드렸다 \* naked: 벗은 채로 \* came from ~: ~로부터 왔다, 나왔다 \* take away: 가져가다

### GRAMMAR

20)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이에 읍이 일어났다 그의 옷을 찢었다 그의 머리(털)을 밀었다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21) and said: 그러더니 그는 땅에 엎드렸다 예배 안에서 그리고 말했다 => 이에 읍이 일어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삭발 하였다. 그러더니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였다.

at this(이에, 이 말을 듣고)는 읍기 1:13-19절 내용을 듣고 나서라는 말이다.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을 직역하면 (예배 안에서 그는 땅에 엎드렸다) 이지만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다. 영 어문장의 문법적 해석이 되었다면 자연스러운 우리말 형태로 의역할 필요가 있다.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I will depart." 벗은 채로 나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왔다 and I will depart. 그리고 또한 벗은 채로 나는 떠날 것이다 => 나는 벗어벗은 채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으니 또한 벗어벗은 채로 나는 떠날 것이다.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은 naked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I was naked when I came from my mother's womb 와 같은 의미이다. 이어지는 naked I will depart에서도 naked 앞에 Being 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With I am naked I will depart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cf) With being naked I will depart = 벗어벗은 채로 나는 떠날 것이다.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주께서 주셨다 주께서 가져가셨다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 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he Lord has taken away 는 현재완료 문장이다. 주께서 가져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가진 것이 없다는 현재의 결과를 나타내준다. 한편 단순히 과거형(took) 동사를 사용하면 현재의 그 결과적인 상태는 알 수가 없다.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는 May + (N) + be + PP 형식의 수동태 기원문이다. cf) May God bless you!

### STUDY & THOUGH

읍은 청천벽력 같은 자녀들의 죽음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그는 비통하고 참담함 속에서도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온 자신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읍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보이는 읍이지만 실제로는 잃은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Job showed that he loved God not because of the blessings received, but because God was worthy of worship.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우리의 합당한 제사장(히10:23-26)찬182장

성령은 구약의 상징주의를 해석하면서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심을 증거합니다. 첫째, 그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24). 구약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지만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후 영원히 살아 계시는 제사장이기에 우리 죄사함에 영원한 효력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그는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25). 이미 죽음으로 완성된 구속이 더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 모든 사건마다 그가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구하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는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셋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십니다(26).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그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고 참된 평안을 가집니다. 이 놀라운 자족을 누리시는 성도가 됩시다.

## 화 한 탁월한 제사장, 그리스도(히10:27-28)찬183장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첫째,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27). 그는 자기 죄를 위해 제사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그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으셨습니다. 둘째, 그는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28).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나가면 반드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맹세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28).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은 단지 그림자일 뿐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의 독특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언제나 오가며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히10:1-6)찬184장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을 본문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까? 첫째, 참 성막에서 섬기기 때문입니다(1-2). 아론의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존귀한 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성막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아계신 성부를 섬기시는 성자의 섬김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완전한 제사에 이미 참여한 자입니다. 둘째, 그는 모형의 증거를 받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5). 모형으로 보여진 모든 성전기구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성취를 위한 완전한 섬김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그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6). 여기 더 나은 언약이란 새언약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새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며 전향시다.

## 목 새언약(히10:7-9)찬186장

그러면 그 새언약이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은 옛언약과 비교하며 그 독특성을 말합니다. 첫째, 주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셨습니다(10). 돌비에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새언약은 성령이 자기 백성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거들나게 하실 때 심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더 큰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를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새언약의 주님을 관념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 교제가 이뤄집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분과의 삶같은 삶의 교제가 영생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셋째,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새언약은 영원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온갖 어둠과 혼란과 공허가 넘쳐나도 그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감사와 찬송하며 새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시다.

## 금 완성된 제사(히10:10-12)찬193장

예전에서 쫓겨난 인간의 회복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취됐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이 완성의 놀라움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첫장막의 제사제도는 그림자라고 합니다(2-6). 그림자가 있음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실체가 온 후에는 그림자의 역할은 모두 사라집니다. 둘째, 그 제사의 초점은 짐승의 피흘림입니다(7). 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흘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죄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흘림은 그 어느 하나도 죄를 사할 수 없었고 그것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 효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피흘림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7). 죄인이 하나님을 만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가입니다.

## 토 예수의 피밖에 없네(히10:13-17)찬197장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영원한 효력이 있는가요? 첫째,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상징주의일 뿐임을 분명히 보 이신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가리킵니다. 그의 단번에 이루심은 그 효력이 영원하고 구체적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피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둘째, 성령으로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태하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심은 그의 죽음이 완전한 효력을 가져왔다는 증거입니다. 죄책으로 고통하는 양심은 그의 죽음을 적용할 때 살아납니다.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사람만이 당당히 보좌에 나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피만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인/터/뷰

## 양수철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단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43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힐튼호텔 LAX에서 개최돼 신임 총회장 양수철 목사(가주노회, 에버그린선교교회)가 선출됐다(관련기사 1면). 양수철 신임 총회장을 만나 취임소감과 함께 총회와 개인적인 목회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두렵습니다. 미주 최대의 한인 교단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때까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는, 놀랍습니다. 대학교 때 학생회장이 일찍 결혼하게 되어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너는 정치지도자가 되라. 나는 종교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말로 종교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민 14:28)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떠올라 놀랐습니다.

-43회 총회를 맡으시면서

총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총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란 한 마디로 ‘가장 건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단’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교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주제를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시 106:3)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법을 따르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총회에 산적해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이 교단을 창립하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단을 2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2세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바르게 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연장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세 번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었듯이 통일된 후의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미리 방법과 인력을 준비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금년에 선교본부장을 영입하고 좀 더 전략적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년도 안에 총회직영 신학교 건물을 되찾

는 재판도 끝내야 합니다. 또 목회자들의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편히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은퇴연금제도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 보시는 현재 한국 교계와 미주 교계에 대한 견해와 조언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 2세 목회자 양성, 북한교회 재건대비, 신학교건물재판 마무리, 은퇴연금제도 활성화 섬김의 목회... 바른 신학 바탕위에 분쟁 없는 교회 지향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나 기관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서 할 일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 일까요? 이것을 대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쟁 문제도 그렇고, 세습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잘못된 주인 의식을 버리고 오직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갖고 계신 목회 철학은 어떤 것인가요?

머슴 목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 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개역성경은 수종자로 되어있음)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수종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즉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는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목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의 의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노블레스는 수탈의 벼슬을 뜻하고, 오블리주는 압타이 낳은 계란의 노른자를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것은 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도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례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빌린 미국교회의 렌트비 내기가 어려워 3년 동안 폴타임으로 일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직장을 사임하고 지금은 목회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의 제일은 성도들의 인성이 너무나도 좋은 점입니다. 지난 20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이나 분쟁이 없었고, 당회를 하면서 얼굴을 붉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잔치와 상속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낙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천국의 지소(支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가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학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잘못되면 그 위에 건설된 신앙은 당연히 잘못되고 결국은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붕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열정이 없습니까? 헌신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헌신도 높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잘못되었기에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따라서 바른 진리의 길을 가려면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사명은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아 인간에게 유익케 함이 있다는 뜻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알찬 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철학이 섬김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1999년 11월 6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4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60대 중반의 가정과 70대 가정 부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겠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심

### Z세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하기

(14면에서 계속)  
6. 우리의 성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상 우리는 학습하고자 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적용돼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훨씬 더 적용돼야 한다. 우리는 삶과 자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평

생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25세에서 50세까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부모와 우리 교회 전문가들은 18세까지만 부모의 역할을 한다. 18세는 요즘 청소년기의 중간쯤이다. 어차피 자녀를 보호

할 수 없는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시키거나 화염병을 던지지 마라. 긴 경기를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의 큰 혼란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

8. 가르치려는 행동이 아니라 자녀가 닮으려는 특별한 사람들에 심취해야 한다

우리 자녀는 엄청난 사람이다. 우리 자녀는 우리가 아니고, 힘과 독특한 재능, 견해와 기질이 있다. 우리처럼 만들려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자녀가 자신의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

9. 자녀는 결국 부모처럼 되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끝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가치관 90%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닌가? 공포, 수치, 성과, 교육, 바른 행동인가? 혹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겸손, 봉사, 예배 등일 수도 있다.

10. 온 힘을 기울여 항상 자녀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레지 조이너(Reggie Joiner)는 그의 저서(Parenting Beyond Your Capacity)에서 자녀와 관계 맺는 방법을 말해준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이 힘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보면 정말 재미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만큼의 힘이 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사용해야 한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30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 (M. Div)  
김미권, 김인숙, 김정민, 박병준, 박휘영, 이승필, 정유승, 정재원, 한우연, 허준
- 기독교 교육학 석사 (M.R.E.)  
허장길
- 여교역학과 (Diploma)  
김정미
- 신학사 (B.Th)  
김성애, 김연수, 박매자, 여선희, 최화순

일 시: 주후 2019년 6월 3일(월) 오후 7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허경화 장로